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장려상** 수상작〉

##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글 정재훈 인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우리 집에서 발생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집은 충청남도 논산군 채운면 장화리에 소재한 전형적인 농촌의 농가 주택으로, 약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의 가정이었다. 가족은 부모님과 위로는 공고 1학년이 다니던 형과 중학교 2학년인 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과 7살 막내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비록 가난한 가정이었으나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시기에 형과 내가 거주할 방을 벽돌조로 깔끔히 지어 주셔서 동네에서 몇 안 되는 독립 공간을 가진 형제로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항상 다른 지방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집에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곤 하셨다.

그러기에 집에는 대개 어머니와 형제들끼리 도란도란 생활하였다. 어머니는 한창 발육 시기인 우리를 위해 가끔씩 고구마를 찌 주시거나 김치전이나 파전 등 간식거리를 만들어 주시곤 하셨고, 먹어도 먹어도 돌아서면 허기지던 학창 시절이었기에 어머니의 간식들은 형제들에게 크나큰 먹거리 즐거움으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밖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조금은 쌀쌀했던 가을쯤인 것 같다. 형제들은 안방에 배

를 깔고 엎드려 고작 14인치 조그마한 텔레비전 주변에서 일요일의 여유로움을 즐기던 오후 3시 전후쯤, 형이 “비도 오고 출출한데 먹을 거 없어요?” 하며 어머니 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빨래를 정리하시던 어머니는 “옷가지 좀 정리하고 튀김이라도 만들어 즐겨?” 하셨다. 옷 정리 후 별채 부엌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제일 큰 프라이팬에 기름을 중간쯤 붓고는 연탄 뚜껑을 열고 프라이팬을 올려 놓으셨다. 이어 연탄불 조절 마개를 열어 불세를 올리셨다. 우리집 안채 부엌은 아궁이 식이었고 형과 내가 거주하는 별채는 연탄식이었다. 불 마개를 열고 안채 부엌으로 가셔서 튀김거리를 찾아 찬장 안의 밀가루와 계란 몇 개를 모아 놓고 이어서 고구마 서너 개를 대야에 넣고 닭으셨다. 그러던 중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고 이야기를 하기를 즐기던 아주머니는 엄마 옆에서 동네 일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마루에 앉아 밀가루를 몽개며 웃고 수군거리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잡담을 나누셨다. 그러다 30여 분을 그렇게 이야기 속에 넋을 놓고 있을 즈음, 형이 “엄마! 멀었어?” 하고 간식을 재촉하자 그때서야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향해 “맛다! 내정신 좀 봐, 연탄불에 기름 올려 놔는데……” 하고 무릎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는 부랴부랴 부엌에 가셨고, 연탄불에 올려 놓은 기름에는 불꽃마저 붙어 있었다.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그저 살랑살랑 흔들리며 기름 위에서 춤을 추듯 나부끼고 있었기에 그리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불을 보고 놀란 어머니는 허둥대며 부엌에서 나와 큰 소리로 “기름에 불 붙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며 방 안의 우리를 부르셨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생활이 어려워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셨기에 글도 모르지만 기타 생활 지식도 경험으로 얻은 것 외에는 고등학생인 형에게 많이 의지하는 편이었다.

제일 먼저 형이 뛰어나갔고 이어 나와 동생들도 따라나갔다. 부엌을 본 순간 정말 기름에 불꽃이 보였다. 그때였다. 나를 용감한 형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들고 왔다. 그리고 늠름하게 한 마디를 내뱉으며 “엄마! 좀 비켜보세요. 내가 꺼줄게!!” 하고 순간적으로 기름을 향해 물을 던졌다. 결과는 참담했다. “짱!” 하며 엄청난 불꽃 폭풍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날아갔다 사라졌던 것이다. 물을 던진 형은 부엌 입구 문 앞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피했고, 나와 막내 역시 4m쯤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다 동생을 감싸며 몸을 숙여 화를 면했다. 그러나 엄마와 큰 여동생은 내 앞에서 뒤로 물러나며 고개만 돌린 탓에 머리카락이 불꽃에 스쳐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그윽음 냄새가 코를 찔렸다. 놀라고 또 당황한 어머니가 급하게 빨래통에 쌓아 놓은 젖은 수건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두드려 화기를 제거했지만, 아프리카 토인마냥 꼬들꼬들해진 머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다행히 부엌의 기름 불꽃은 없어졌으며 특별히 탈 만한 물건이 없었고 천장과 벽체가 콘크리트 건물로 실내에 인테리어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 변질 만한 여건은 없었다. 놀란 형과 가족은 창백한 얼굴로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천만다행하게도 끊는 기름이 얼굴이나 몸에 뿌려지지는 않아 아무도 화상은 입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을 여동생과 어머니는 짧은 단발

을 하고 생활을 해야 했으며 연탄불 위에서의 간식 만들기에는 없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아는 게 힘이다.’라고 누군가가 한 말이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예전 1980년대에는 누구 집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화재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고는 물을 뿌려서 꺼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이 일반적이었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껏해야 학교에서 겨울 즈음에 하는 불조심 캠페인 포스터 그리기 정도였던 것 같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과 ‘아는 게 힘이다.’라는 옛 속담에서 보듯이, 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불의 종류에 따른 선택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가연물이 연소하기에는 산소와 더불어 불꽃의 매개체와 연쇄 반응 등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만 제거하면 불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데 이것이 소화의 기본 원리이다. 우리 집 상황처럼 기름이 연소하고 있을 때는 기름이 열에 기화하며 발생하는 가스가 타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산소만 제거하는 질식적 소화를 해야 했을 것이다. 즉 프라이팬을 열기가 없는 곳으로 옮기고 뚜껑만 덮어 놓았어도 지속적인 연소의 진행을 차단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각 소방관서의 화재 예방 교육으로 집집마다 소화기 비치 및 기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있고, 법 제도로상 일정한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 장비 등을 비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다. 옛날 무지의 무모한 추억을 거울삼아 다시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금만 침착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가다듬어 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 사고마다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제가 보다 멀리 넓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